참회만으로도 행복의 길에 '성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⑮ 반야 참회 주의 사항

⑺ 생각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도 참회해야 한다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자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다. 참회는 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참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첫째, 부처님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업에 대해서도 다 참회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예불문에는 부처님을 설명하는 '삼계도사 사생자부(三界導師 四生慈父)'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길을 안내해 주시는 스승이시며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와 같이 어리석게 죄를 짓는 범부들의 삶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이다. 〈천수경〉에 나오는 '영사멸제제죄업(永使滅除諸罪業)'이라는 말도 '모든 죄업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애 주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이다.

둘 다 중생의 모든 죄업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불보살님의 대자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극단적인 죄업을 저질렀다고 해도 부처님 앞에 참회가 안 되는 죄는 없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업을 그대로 부처님께 고백하며 참회하면 된다.

둘째, 힘들다고 참회하지 않으면 장애가 많아 수행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서도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참회를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과보를 받는 조건이 소멸하기 때문에, 과보를 받을 인연이 다가온다고 해도 고통스럽지 않게 지나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참회를 하고 선업을 계속 짓게 되면 그 선업의 힘으로 과보를 받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의 과보가 오기 전인 지금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참회가 잘 안 될 때에는 참회하기 싫은 항목을 억지로 참회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항목을 참회한다. 그리고 참회하기 싫은 항목에 대한 참회는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다가 생각하기 싫으면 또 멈췄다 하면서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회를 하지 말고 세월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되지 않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이다.

⑻ 양심 때문에 참회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불자들 중에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거나 현재도 어쩔 수 없이 악업을 계속 짓고 있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싶기는 한데, 양심상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악업의 과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무슨 양심으로 부처님께 구해달라고 빌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양심이란 보통의 경우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이런 식의 양심이란 중생 차원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으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올가미가 된다. 이럴 때는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갇혀 고통과 악업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보다, 부처님의 힘으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바른길이다.

혹시 자신이 현재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짓고 있다고 해도, 참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처님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발원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

⑼ 참회의 체계를 기억해야 한다

참회를 계속해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참회의 체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참회의 체계란 신업, 구업, 신구 관련 탐진, 신구 무관 탐진 등의 순서를 말하며, 이후에 이어지는 치암(어리석음)도 포함된다.

과거 지은 죄업의 과보, 반드시 받게 돼
모든 죄업 부처님께 고백하며 참회해야

참회 잘 안 되면 시간 두고 꾸준히 시도
자책감에 부처님께 의지, 포기해선 안 돼

반야 참회 체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점검
조급해 말고 꾸준히 하며 변화 기다리길

이 반야 참회의 체계는 불교의 수행론에 의거해 우리의 언행과 마음을 정화해 들어가는 순서로서, 참회 대상이 표면에서부터 내면으로, 알기 쉬운 것부터 파악하기 어려운 순서로 점차 진행돼 간다. 따라서 이 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 순서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참회가 어려워진다. 높은 단계의 참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참회 대상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때는 메모지에 적어 놓고 그걸 보면서 참회하면 되지만, 참회의 체계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참회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이 체계를 따라 점검하면서 빠진 항목이 없도록 확인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잊고 있었던 옛날의 악업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 즉 참회가 조금 익숙해지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두 종류의 악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참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회하는 기간에도 또 다른 악업을 짓고 있음을 망각할 수 있다. 또 참회의 진도가 나가면서 참회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참회가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참회 기간은 오래됐는데도 참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회의 체계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이 체계는 저절로 기억이 된다.

⑽ 참회를 통한 현실적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참회를 조금 해 보고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께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참회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즉 참회를 포기하고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회는 부처님 앞에서 행하는 출세간적인 행위이지,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사회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회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을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업의 습관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러한 악업을 짓기 시작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짧게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길게는 오랜 과거 생에서부터 굳어져 온 것이다. 이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찌 단시간에 되겠는가? 그러므로 쉬지 말고 참회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업장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업이 현실에서 비록 바로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점이다. 참회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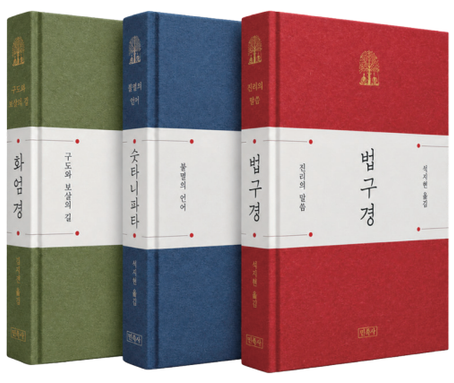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참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해지는 때가 온다. 이때가 되면 "참회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참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할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참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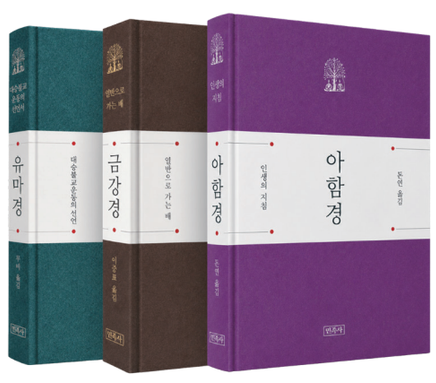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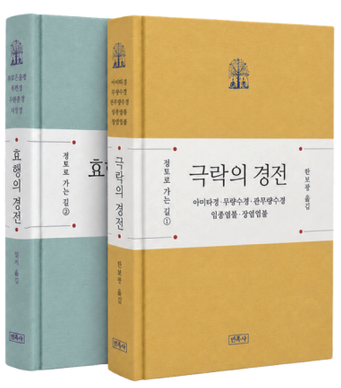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